

제34호

주간농사정보

2026. 8. 24.~8. 30.



농촌진흥청에서는 금주에 꼭 실천해야 할 주요 농업기술 정보를
농업인들에게 매주 신속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목 차 ||

제1장	농업정보		1
제2장	벼		4
제3장	밭 작 물		9
제4장	채 소		11
제5장	과 수		13
제6장	화 훼		16
제7장	특용작물		18
제8장	축 산		20
제9장	양 봉		25

요 약

분야	핵심기술 및 정보
농업 정보	• (기상) 기온은 평년(23.1~24.3℃)보다 높겠고, 강수량은 평년(28.5~64.9mm)보다 대체로 적겠음 *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덥고 습하겠음 • (저수율) 46.9% (평년 68.6%의 68.4%) * 기준: 8. 18. 10:00 기준
벼	• (생육관리) 쌀 품질 향상을 위해 출수 후 30~35일경 완전 물떼기 실시 • (수확 및 건조) 일반용 45~50℃, 종자용 40℃ 이하의 낮은 온도에서 서서히 말리며, 수분함량 약 15%까지 건조 시킴 • (병해충 방제) 이삭도열병, 벼흰잎마름병, 멸구류, 흑명나방 등 적기 방제
밭작물	• (콩) 논콩 기상재해에 주의, 노린재, 탄저병 등 적용약제로 방제 • (밭작물 수확) 2모작 참깨, 풋땅콩, 고랭지 여름 재배 감자 적기 수확
채소	• (가을 배추무) 배추 아주심기(중부 9월 상순, 남부 9월 중순), 무 숙음 작업 실시 • (고추) 80% 이상 붉어진 고추 즉시 수확, 수확 종료 후 잔재물 제거 • (마늘·양파) 씨마늘 준비, 양파 조생종 파종(8월 하순~9월 상순) 등 • (딸기) 화아분화 지연 시 관행보다 5~10일 늦게 정식 권장
과수	• (사과 착색 관리) 옷자란 가지 유인 또는 제거, 잎 따주기와 과일 돌려주기, 반사필름 깔기, 수확 전 수분 관리를 통한 착색증진 • (조생종 수확) 품종 고유의 선택, 당도 등 종합적 판단하여 적기 수확
화훼	• (시설 관리) 태풍 시 집중호우와 바람에 대비해 시설물 관리 철저 • (시설 장미) 시설 내 온도 30℃ 이하, 습도관리 주의, 흰가루병 및 노균병 방제
특작	• (인삼) 집중호우로 인한 생리장해와 고온다습한 환경에 의한 탄저병, 점무늬병 등 병해충 발생 증가 우려에 대비한 관리 필요 • (약용작물) 당귀, 시호, 독활, 황기, 황금 등은 8월 하순까지 웃거름, 목단, 작약, 천궁 등은 가을 파종에 대비해 종자나 종묘 준비 • (느타리버섯) 품종에 알맞은 온도·환기·습도 등 정밀 관리
축산	• (적정 사육 온도) 기온이 지나치게 높으면 조절 능력에 한계가 나타나 사료 섭취량이 줄고, 활동량 감소, 생산성이 저하, 심한 경우 폐사 • (한우 사료 섭취량) 사육 적온 송아지 13~25℃, 육성 및 번식우 4~20℃, 비육우 10~20℃, 사료 섭취량 줄 때 흑설탕, 비타민 C 급여 등 • (축사 전기화재) 누전, 합선, 용량 초과로 인한 축사 화재 피해 예방 철저
양봉	• (가을철 기본 관리) 9월 중하순 월동벌을 양성할 월동 자격군을 양성하는 시기로 설탕물과 화분을 집중적으로 공급함 • (가을왕 육성) 구여왕벌 교체는 철망유입법 이용하고, 중요한 왕의 경우에는 어린 벌 이용 유입이 가장 안전 • (해충 관리) 응애류, 말벌, 나방, 거미 등 방제 필요



제1장 농업정보

1 기상 정보

○ 최근 1개월(2026. 7. 16.~8.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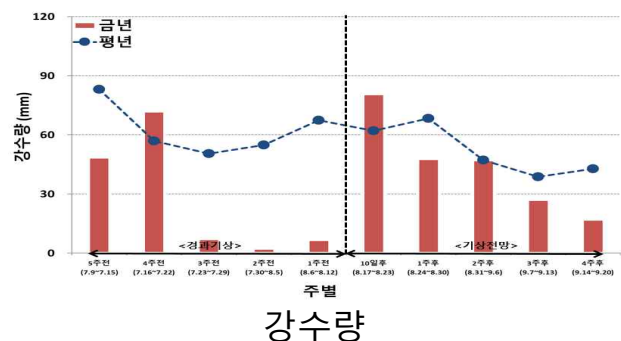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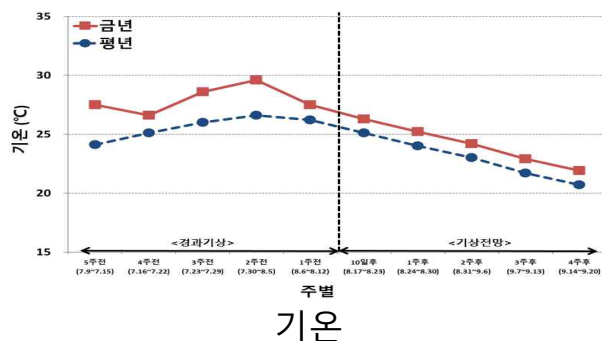
- 기온은 28.1℃로 평년*(26.0)보다 2.1℃ 높았음 * 평년: 30년('91~'20) 평균
- 강수량은 88.4mm로 평년(229.8)보다 141.1mm 적었음(38.5%)
- 일조시간은 200.6시간으로 평년(162.1)보다 38.5시간 많았음(123.8%)

○ 1개월 전망(2026. 8. 24.~9. 20.) * 기준일: '26. 8. 14., 11:00 기상청

-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음
- * 북태평양 고기압(8월 4주)과 고기압(8월 5주, 9월 1~2주)의 영향을 받겠음
- 강수량은 평년보다 대체로 적겠음
- * 저기압의 영향을 받을 때가 있겠음(8월 5주)

구분	평균기온	강수량
8월 4주 (8.24.~8.30.)	평년(23.1~24.3℃)보다 높겠음	평년(28.5~64.9mm)보다 대체로 적겠음
8월 5주 (8.31.~9.6.)	평년(22.2~23.4℃)보다 높겠음	평년(17.2~52.0mm)과 비슷하겠음
9월 1주 (9.7.~9.13.)	평년(20.9~22.1℃)보다 높겠음	평년(8.0~46.1mm)보다 대체로 적겠음
9월 2주 (9.14.~9.20.)	평년(19.8~21.0℃)보다 높겠음	평년(8.6~39.3mm)보다 적겠음

○ 최근 기상 경과와 전망



* 자료제공: 국립농업과학원 심교문 연구관(063-238-2518)

2

저수율 및 강수량 현황

□ 전국 저수율: 46.9%(평년 68.6%의 68.4%)

* 기준일: 8. 18. 10:00

(단위: %)

년도 \ 시도	전국	인천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금년(A)	46.9	58.1	58.5	70.9	63.1	52.1	34.7	44.1	46.5	50.4	50.8
전주대비 (8. 14.)	(↑ 2.2)	(↓ 2.1)	(↓ 1.0)	(↓ 1.0)	(↓ 0.2)	(↑ 0.7)	(↓ 0.4)	(↑ 2.3)	(↑ 0.1)	(↑ 18.5)	(↑ 4.6)
평년(B)	68.6	73.5	72.2	76.7	72.5	68.0	69.2	64.1	69.1	69.4	59.7
평년대비 (A/B)	68.4	79.0	81.0	92.4	87.0	76.6	50.1	68.8	67.3	72.6	85.1

□ 2026년 누적 강수량: 713.4mm(평년 917.7mm의 77.7%)

(단위: mm)

년도 \ 월	1	2	3	4	5	6	8/18 까지	8/19 이후	8	9	10	11	12	합계
금년(A)	4.3	17.3	65.3	79.7	125.4	95.4	220.0	106.0						713.4
평년(B)	26.3	35.7	56.5	89.7	102.1	148.2	296.5	162.7	119.9	155.1	63.0	48.0	28.0	1,331.7
A/B(%)	16.3	48.5	115.6	88.9	122.8	64.4								53.6

○ 시도별 누적 강수량(2026. 1. 1.~8. 18.)

(단위: mm)

년도 \ 시도	평균	인천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금년(A)	713.4	630.5	649.5	736.0	677.5	734.1	580.0	852.7	570.0	874.6	1,071.7
평년(B)	917.7	872.6	935.7	920.6	877.8	861.3	914.2	963.0	779.9	1,065.3	1,096.2
A/B(%)	77.7	72.3	69.4	79.9	77.2	85.2	63.4	88.5	73.1	82.1	97.8

○ 최근 2개월 누적 강수량(2026. 6. 19.~8. 18.)

(단위: mm)

년도 \ 시도	평균	인천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금년(A)	392.8	447.1	456.3	465.5	432.5	455.2	284.7	314.4	311.2	447.1	404.1
평년(B)	551.1	585.5	635.0	590.6	559.4	533.5	560.9	514.4	464.5	582.6	486.5
A/B(%)	71.3	76.4	71.9	78.8	77.3	85.3	50.8	61.1	67.0	76.7	8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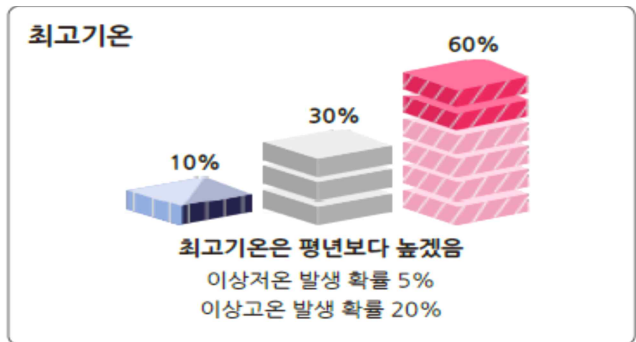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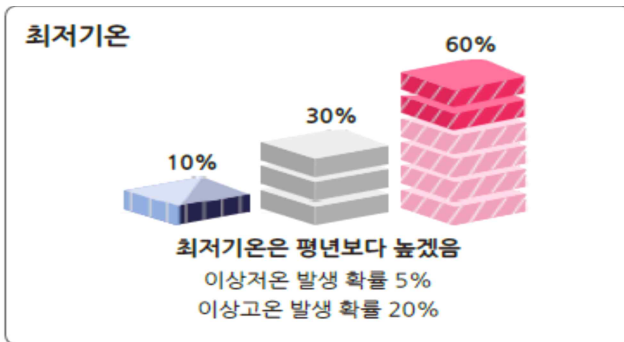
<출처> 한국농어촌공사

참고

이상 기후 감시 · 전망 정보

□ 최저·최고 기온과 이상기온 전망(2026. 8. 24.~8. 30.)

- 최저기온은 평년(19.4~20.8℃)보다 높겠고, 이상저온(17.9℃ 미만) 발생률은 평년보다 낮은 5%, 이상고온(22.4℃ 초과) 발생률은 평년보다 높은 20%
- 최고기온은 평년(27.7~28.9℃)보다 높겠고, 이상저온(26.1℃ 미만) 발생률은 평년보다 낮은 5%, 이상고온(30.5℃ 초과) 발생률은 평년보다 높은 20%



< 주요 지점별 이상저온 및 이상고온 기준 >

지점	이상저온 기준 최저기온	이상고온 기준 최고기온	지점	이상저온 기준 최저기온	이상고온 기준 최고기온
서울	19.3℃ 미만	30.4℃ 초과	인천	19.2℃ 미만	29.9℃ 초과
춘천	17.1℃ 미만	30.3℃ 초과	강릉	18.0℃ 미만	29.8℃ 초과
대전	19.2℃ 미만	30.8℃ 초과	청주	19.1℃ 미만	31.0℃ 초과
광주	20.1℃ 미만	31.2℃ 초과	전주	19.4℃ 미만	31.4℃ 초과
대구	19.7℃ 미만	32.5℃ 초과	울산	19.9℃ 미만	31.5℃ 초과
부산	20.6℃ 미만	31.2℃ 초과	제주	22.0℃ 미만	31.8℃ 초과

※ 막대그래프는 주 평균 최저기온과 최고기온의 낮음·비슷·높음의 확률 전망을 의미하며, 합은 100

※ 평년(1991~2020년) 동일 기간과 비교하여 이상저온은 최저·최고 기온이 10퍼센타일 미만, 이상고온은 최저·최고 기온이 90퍼센타일 초과 범위로 정의

※ 이상저온, 이상고온의 평상시 발생 확률은 10%이며, 각각 낮음과 높음 확률에 포함되어 있으며, 발생 확률이 30% 이상인 경우 해당 현상의 발생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하며, 평상시 보다 약 3배 이상 발생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



퍼센타일은 평년 동일 기간에 발생한 기온을 비교하여 작은 순서대로 몇 번째인지 나타내는 백분위 수

<출처> 기상청/ 기후예측/ 1개월 전망(8월 13일 발표)

* 자료제공: 농촌진흥청 이우일 지도사(063-238-1046)



제2장 벼

1 후기 논 관리

- (물 관리) 출수가 완료된 벼는 출수기 이후 물관리를 철저히 해야 함
- 논물을 완전히 떼는 시기는 일반적으로 출수 후 30~35일경 실시
 - * 물 떼기 시기가 적기보다 빠르면 벼알이 충실히 여물지 못하여 청미, 미숙립 등 이 증가하고, 물을 너무 늦게 떼어 수확 작업이 늦어지면 깨진 쌀(동할)이 많아짐
 - 출수 시기가 9월 이후로 늦어지면 기온이 낮아져 여물 속도가 늦어 지므로 출수 후 40~45일까지 논물을 대주어 여물 비율을 높여줌
 - 토양환원이 심한 습한 논, 배수가 불량한 논 등은 배수구를 파서 1차 낙수하고, 등숙이 끝난 후 완전 물떼기 필요

<벼 생육 단계별 물관리 요령>

생육기간	물 대는 요령	물깊이(cm)	효 과
출수기 (이삭이 나오는 시기)	보통으로 댈 것	3~4	꽃가루반이 촉진
등숙기 (이삭이 익는 시기)	물 걸러대기 (3일 관수/2일 배수)	2~3	여물 촉진, 뿌리기능 유지, 유해물질 제거
낙수기 (물 떼는 시기)	완전 물떼기 (이삭패기 후 30~35일 전·후)	0	품질 양호, 농작업 편리

※ 품종, 지대별 이앙 적기 차이, 가뭄에 의한 이앙 지연 등에 따라 생육단계에 차이가 있음

<완전 물 떼기 시기별 외관 품질>

완전 물 떼기	외관 특성 (%)		
	완전미	청미	미숙립
출수 후 20일	68.9	10.1	3.0
" 30일	73.9	6.5	1.4
" 40일	74.1	6.4	1.3

2

적기 수확 및 건조

○ (수확시기) 품종의 숙기 또는 출수기에 따라 다르나 조생종은 출수 후 45~50일, 중생종은 출수 후 50~55일, 중만생종 및 만식재배는 출수 후 55~60일이 수확적기

- 조생종 등에서 수발아 발생한 논은 빨리 물을 빼고 조기 수확함

<벼 출수기별 수확적기>

품종	출수기	출수 후 일수
조생종	8월 초	45~50일
중생종	8월 상순	50~55일
중만생종 또는 만식재배	8월 중순 이후	55~60일

※ 출수 후 수확기 적산온도(1,100~1,200℃)

○ (건조) 조생종 등 일찍 수확을 시작한 벼를 높은 온도에서 말리면 품질이 나빠지므로 일반용 45~50℃에서 종자용 40℃ 이하의 낮은 온도에서 서서히 말리도록 함

- 벼 건조 시 동할(고온에서 급격히 말려 표면에 금이 간 현미)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초기 수분함량이 높을수록 송풍 온도를 낮춤

* 건조 온도를 55℃ 이상 높이면 동할 발생이 증가하여 식미가 감소함

- 벼는 수분함량이 22~25% 정도이므로 온도변화에 따른 호흡량을 억제할 수 있는 안정 수분함량(약 15%)까지 건조 시킴

<물벼의 수확 후 건조까지 시간>

물벼 수분함량(%)	건조까지 한계 시간	비고
20% 이상	8시간 이내	수확적기
26% 이상	4~5시간 이내	수분이 많은 물벼

3

병해충 방제

□ 이삭도열병

- (발생환경) 여름철 기온이 20~25℃로 낮아진 상태에서 3일 이상 연속으로 비가 내려 습기가 많아지면 잘 발생함
- (증상) 벼가 익는 시기에 이삭목에서 발생하여 감염 부위가 갈색으로 변하면서 양분 이동이 억제돼 이삭 전체가 말라 죽음
- (방제) 최근 도열병이 많이 발생했던 지역은 이삭 팬 이후 예방 위주로 약제 방제 시행

* 일반유제·수화제·액제는 2회 방제, 약효가 긴 침투이행성 입제나 수화제는 1회 방제



잎도열병

도열병

이삭도열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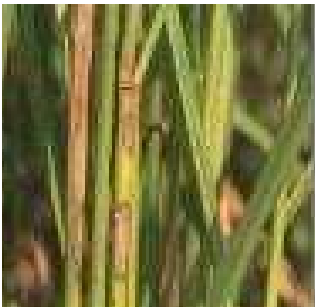
□ 세균벼알마름병

- (발생환경) 이삭 패기 전후 30℃ 이상의 높은 기온과 다습한 환경이 계속될 때 잘 발생하며, 최근 여름철 고온과 잦은 비로 병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므로 수시로 살펴 초기에 방제
- (증상) 감염 초기에 벼알이 맷히는 부분부터 갈색으로 변하면서 점차 벼알 전체가 변색하고, 여물지 않아 이삭이 꺾꽂하게 서 있음
- (방제) 이삭 팬 전·후 가스가마이신, 옥솔린산 성분 등 등록약제 방제 - 종자를 통해 전염되므로 건전 종자를 사용해 병을 예방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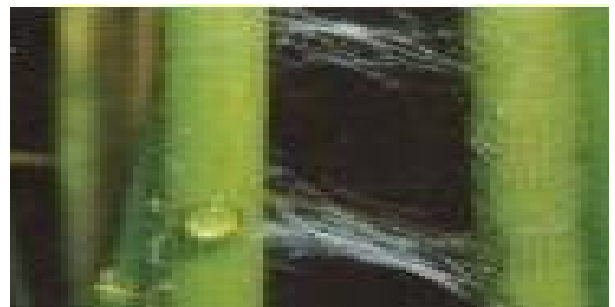
□ 잎집무늬마름병

- (발병) 고온 다습한 환경과 조기 이앙, 밀식재배, 비료를 과다하게 줄 때 많이 발생

- (증상) 병균에 의해 잎집에서 반점 또는 얼룩무늬 증상이 나타나며 최대 50%까지 감수됨
- (방제) 벼가 자라면서 점차 병반이 윗잎으로 확산되므로 벼대 아래 부위를 잘 살펴본 후 병든 줄기가 20% 이상이면 병반이 충분히 젖을 수 있게 적용약제를 살포함
 - 특히 도열병 방제를 위해 입제 농약을 살포하여 잎집무늬마름병 방제를 동시에 하지 못하는 논은 이삭도열병과 멸구류를 동시 방제함



잎집무늬마름병



잎집무늬마름병 균사

□ 흰잎마름병

- (발병) 장마철 집중호우 침수지역에서 병이 급속히 번질 우려가 있으므로 등록 약제를 선택하여 잎도열병과 동시에 방제함
- (증상) 황색~등황색 병징이 잎에 나타나고 잎 중앙맥까지 번지면 물결 모양으로 확대, 병반 면적을 25% 이상일 때부터 수량 감소
- (방제) 발생 상습지 농수로의 물은 병원세균이 많이 노출되어 있어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등록 약제로 잎도열병과 동시 방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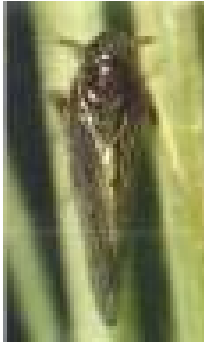
흰잎마름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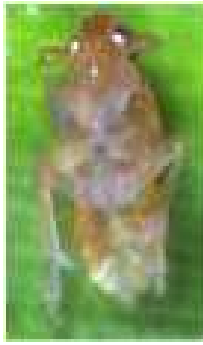
흰잎마름병 균누출

□ 벼멸구, 흰등멸구, 흑명나방

- (벼멸구, 흰등멸구) 초기방제가 중요하므로 멸구가 날아온 서남해안 지역에서는 벼대 아래쪽을 잘 살펴보아 발생이 많으면 적용약제로 방제함



벼멸구 성충 및 약충



흰등멸구 약충 및 성충



벼멸구 피해

- (흑명나방) 논을 살펴보아 포장에 피해 잎이 1~2개 정도 보이거나 벼 잎이 세로로 말리는 유충 피해증상이 보이면 적용약제 살포함



흑명나방 성충



흑명나방 유충



피해증상

* 자료제공: 국립식량과학원 조아라 지도사(063-238-5212)

( 맨 앞으로)



제3장 발 작 물

1

콩

- (생육 관리) 콩의 영양분이 잎에서 종자로 이동하여 알곡 자람의 중요시기이므로 화기탈락 현상 및 생육이 부진하면 조기 회복을 위해 엽면시비(0.5~1% 요소를 2~3회(1회/1일, 100~200g/물20L))
 - 종실 비대기의 가뭄은 콩알의 무게, 크기 감소, 품질 저하 요인이 되므로 포장이 마르지 않도록 주의
 - (논콩 관리) 논에 심은 콩은 습해를 받기 쉬우므로 콩알이 차는 8월 하순경에는 강우와 강풍에 대비하여 배수로를 정비하고, 웃자라고 무성한 콩은 햇볕과 바람이 잘 통하도록 순지르기 등을 해줌
 - 투광·통풍을 위한 순지르기는 생장점(마디 끝)이 아닌 식물체의 측면(잎)을 자름
 - 병충해 방제
 - 잎줄기마름병은 비와 바람에 의해 쓰러져 지표면과 닿은 잎, 잎자루, 꼬투리에 8월 중순~9월 상순에 발생하므로 배수로 정비, 쓰러짐 방지 및 적용약제를 살포
 - 톱다리개미허리노린재, 가로줄노린재, 알락수염노린재 등 주요 노린재류는 콩의 생육단계를 보아 8월 중·하순경 방제 필요
- ※ 노린재류의 활동 시간대를 고려하여 적용약제를 오전 또는 해 질 무렵에 방제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약효 지속 기간은 약 10일임



톱다리개미허리노린재의 성충과 약충

가로줄노린재(성충)

풀색노린재(성충)

2

밭작물 수확

- (참깨 수확) 참깨 2모작 재배는 9월 상순~9월 중순에 줄기 아래 부분의 꼬투리 2~3개가 성숙하여 갈라지면 수확
 - 종실을 종자로 저장할 때는 충분히 건조(수분함량 10% 내외)함
- (땅콩 수확) 풋땅콩은 첫 개화 후 80~90일에 수확
 - 8월 중순~9월 중순 수확하며, 적기 판단은 꼬투리의 성숙도를 보고 판단하며 성숙한 꼬투리는 표면에 망상의 그물 무늬 있음
- (감자 수확) 고랭지에서 여름에 재배되는 감자는 9월 상순~중순까지
 - 수확을 한 후 통풍이 잘되는 그늘에서 말려 씨감자로 사용
 - 잎줄기 제거 후 강우가 잦아 수확이 지연되면 품질이 저하되고 토양의 부패균이 침입하여 저장성이 떨어지므로 곧바로 수확함

* 자료제공: 국립식량과학원 전수연 지도사(063-238-5223)

( 맨 앞으로)



제4장 채 소

1

가을배추·무

- (배추 육묘) 고온다습 시 웃자라기 쉬우므로 알맞은 수분 관리 및 환기
 - 육묘상에 망사 터널을 설치하여 해충 유입 및 바이러스 매개충 차단
 - 아주심기 1주일 전에는 포장 환경에 견딜 수 있게 물 주는 양을 줄이고, 온도를 낮추면서 직사광선에 많이 노출하여 순화시킴
- (배추 아주심기) 중부지방 9월 상순, 남부지방 9월 중순이 적기임
 - 아주심기 10~15일 전까지 밑거름을 주고, 로터리 친 후 이랑 조성
 - 본 잎 3~4매 때 육묘상 깊이만큼 심음
 - 심는 시기가 고온기이면 흐린 날 오후에 심는 것이 모의 활착에 좋음
 - 가뭄이 계속될 때는 묘 자체와 심을 구덩이에 물을 충분히 주고 심음
- (무 솥음) 잎(본엽)이 1~2매 전개될 때~본엽 6~7매일 때까지 끝마침
 - 노동력의 유무에 따라 작업은 2~3회 실시할 수 있으며, 생육이 극히 왕성하거나 불량한 것, 잎 색이 특별히 다른 것, 병해충의 피해를 본 것 등을 솥아냄
 - 재배 면적이 크거나 노동력이 부족한 경우 본 잎 4~5매 때 1포기 남기고 솥아줌

2

고추

- (적기 수확) 열매 색이 진홍색이고 과실 표면에 주름이 생겼을 때
 - 착색이 80% 이상 붉어진 고추는 즉시 수확함
 - 수확기가 늦으면 탄저병균의 침투로 건조과정에서 탄저병 증상이 나타나 수량이 감소하고 품질이 저하됨
 - 탄저병이 예상되는 열매는 착색되면 빨리 수확해 건조함
- (포장 관리) 수확 종료 후 병든 고추, 줄기 등 잔재물 소각 및 제거

3

마늘 · 양파

- (씨마늘 준비) 난지형 마늘 9월 하순~10월 상순경이 파종 적기
 - 적기에 파종될 수 있도록 우량종자, 비닐 등 자재 등을 미리 준비
 - 보통재배의 경우 10a 당 난지형 60~70접, 한지형 70~80접이 필요
- (양파 육묘) 본잎 2~3장 될 때 묘를 1cm 간격으로 남기고 솟음 작업, 제초 작업과 동시에 노출된 뿌리 부분을 덮어줌, 잘록병 방제
 - * 가을뿌림 재배 파종(8월 중순~9월 중순), 아주심기(10월 상순~11월 상순)
- (양파 아주심기) 내륙지역은 빨리, 남부지역과 제주지역은 늦게 심음
 - 아주 심는 시기가 너무 빠르면 추대되기 쉽고, 늦으면 월동 중 동해나 건조해 받기 쉬움

< 양파 가을 파종 품종별 재배 시기 >

구분	파종기	아주심기	수확기
극조생종	8월 중순~8월 하순	10월 상순~10월 중순	4월 상순~4월 중순
조 생 종	8월 하순~9월 상순	10월 상순~10월 중순	5월 상순~5월 하순
중만생종	8월 하순~9월 중순	10월 중순~11월 상순	6월 상순~6월 하순

4

시설채소

- (광 환경) 일조가 부족하면 착과 불량, 수량 감소, 병해 등이 나타나므로 잎 따주기, 일사량에 따른 변온관리, 반사판 설치 등으로 개선
- (딸기 축성재배) 8월 하순~9월 상순 육묘 후기 고온 지속으로 화아분화가 지연되는 경우 관행보다 5~10일 늦게, 9월 중순 이후 심는 것을 권장
 - 아주심기 전에 토양 선충 검사로 식물 기생충 피해 예방
 - * 건전묘 기준: 전개엽 4~5매, 관부(crown)의 직경 1cm 전후, 묘령 50~60일

* 자료제공: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이승규 지도사(063-238-6421)

( 맨 앞으로)



제5장 과 수

1 사과 착색 관리

○ 웃자란 가지 제거

- 수세가 강하여 웃자란 가지가 많이 발생한 나무는 수관 내부 햇빛 투과량이 적어 과실의 착색 및 꽃눈형성이 불량해짐
- 햇빛 투과를 방해하는 불필요한 가지와 웃자란 가지를 유인하거나 제거
- 과일 비대가 진행될수록 아래쪽의 가지는 늘어져 지면에 가깝게 되는데, 이는 과실 품질 저하뿐 아니라 약제의 수관 내 투입 효과도 떨어뜨림
- 과일이 달려 무거워 처진 가지는 받침대로 받쳐주거나 끈으로 유인하여 과일이나 잎이 충분히 햇빛을 받도록 해주고 약제 방제 효율성도 높여주어야 함

○ 잎 따주기와 과일 돌려주기

- 착색증진을 위해 실시하는 잎 따기와 과일 돌려주기는 잎을 따주는 시기가 너무 빠르거나 많은 양을 한 번에 따주면 과일 비대와 꽃눈 충실도에 나쁜 영향 미침
- 잎 따주기 정도는 전체 잎의 30%를 넘지 않도록 함
- 잎 따주기 1차는 과일에 닿는 잎과 그 주변 잎을 제거하고, 2차는 1차 때보다 좀 더 범위를 넓혀 실시
- 과일 돌려주기는 햇빛을 받는 면이 충분히 착색된 이후에 실시하며 과일을 약간 들면서 반대 면으로 낙과되지 않도록 돌려줌

○ 반사필름 깔기

- 중생종은 수확 2주 전, 만생종은 수확 예정 한 달 전쯤 깔아주며 봉지를 씌운 과일은 속 봉지를 벗긴 후 깔아줌
- 2중 봉지를 씌운 과일은 속 봉지까지 제거한 후 깔아주어야 효과를 높일 수 있음
- 반사필름은 마지막 약제를 살포한 후 잎 따기와 웃자란 가지를 제거한 후 실시
- 반사필름은 수관 아래 햇빛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 부위에 깔아 빛이 반사되어 나무 아랫부분에 달린 과실에도 착색이 고루 이루어지도록 설치
- 반사필름을 너무 일찍 깔아주면 일소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
- 비가 오는 경우 빗물이 신속히 빠져나갈 수 있도록 수관 아래를 약간 높이고 열간 쪽을 낮추는 것이 좋음

○ 수분 관리

- 비대기의 건조는 과일의 발육을 불량하게 하고 크기를 작게 하며 성숙을 지연시키므로 수분 장애가 없도록 적절한 관수 필요
- 착색기에는 관수보다는 배수가 중요하므로 수확 20일~1개월 전에는 수분이 적은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착색에 도움이 됨

2

조생종 수확 및 수확 후 품질관리

- (적기 수확) 성숙기 과실은 품종 고유의 선택, 당도 등을 종합 판단
- (수확 방법) 한 번에 전량 수확하기보다는 과원 상단부 및 햇빛을 잘 받는 외곽 과실부터 2~3회 이상 나누어 수확

- 강우 또는 기습 소나기 직후 수확 시 과실의 품질 및 저장성 등이 떨어지므로 비가 그친 2~3일 후 수확 권장
 - 고온기 수확 시 과실 자체의 온도 및 호흡량이 급증하여 품질 저하, 부패 등을 보일 수 있으므로 가급적 아침 일찍 수확 작업 실시
 - 수확 시 과실에 눌림이나 상처가 나지 않도록 작업용 장갑 등을 착용하고, 열매 자루를 바짝 잘라 수확 용기 내 과실끼리 상처입히는 것을 방지
- (수확 후 관리) 수확한 과실은 직사광선이 닿지 않도록 과원 내 서늘한 그늘 및 저온저장고로 즉시 이동
- 수확 후 호흡열, 품온을 낮추기 위해 통풍이 잘되는 서늘한 그늘에서 열을 식히거나, 저온저장고를 활용하여 예냉처리 후 선별·포장 진행
- * 저온저장고 내 온도상승 방지를 위해 적정 용량(70~80% 수준) 나누어 입고

*** 자료제공: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장상현 지도사(063-238-6432)**

 **맨 앞으로**



제6장 화 해

1 태풍(강풍, 호우) 대비 시설 관리요령

○ 태풍 시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 양상

- 태풍 시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는 하천 주변의 저지대에서 주로 발생하므로 시설 재배지 선정 시 고려
- 피해 양상은 유속이 빠른 경우 토양의 침식과 주변 시설의 쓰러짐을 일으키고, 유속이 느린 경우 시설 내 부유물이 쌓여 피해 발생
- 침수 발생 시간에 따라 피해 정도가 달라지며, 품종에 따라 내수성이 약한 품목은 피해 후 회복 불가함
- 침수나 집중호우로 인해 수체의 저항성이 약해지고, 병원균의 급속한 전파로 병해충 발생이 증가

○ 강한 바람과 호우 대비

- 비바람에 대한 예보가 있는 경우 미리 온실 내 작물에 대한 비바람 피해 방지 조치
- 주변의 제방이나 시설 등이 붕괴되지 않도록 사전점검 및 정비하고, 시설 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 바람에 날아갈 위험이 있는 시설·설비 등은 단단히 고정하고, 피해 발생 대비를 위하여 인근 센터와의 비상 연락망 구축
- 배수로 잡초 제거 및 배수시설 정비로 원활한 배수 유도
- 강풍 또는 태풍이 불 때 치마 비닐이 없어 밀폐되지 못한 단동 비닐하우스는 다음의 관리 요령으로 대비
 - 앞·뒤 출입문과 측면 개폐기를 최대한 활짝 열고 단단히 고정

- 하우스 끈을 단단히 묶음(특히 앞·뒤 마구리벽에서 3m까지는 서까래마다 하우스 끈을 반드시 묶음)
- 강풍에 의해 비닐하우스 골조가 뽑히지 않도록 철항 등을 이용하여 지면의 고정력을 강화
- 하우스 지붕 비닐에 찢어진 곳이 있으면 테이프 등으로 봉합

○ 집중호우 등 사후 대책

- 침수가 되지 않도록 최대한 대비
- 물이 빠질 때는 식물체의 줄기나 잎에 묻은 흙 양금과 오물 제거
- 침·관수 포장은 병해충 철저 방제

2 시설 장미 여름철 온도관리

- (온도관리) 여름철 고온이 되면 꽃이 작아지고 꽃잎 수가 줄어들며 퇴색되므로 30℃ 이상이 되지 않도록 관리함
 - 여름철 온도하강 시스템으로 패드팬, 포그, 에어컨 등이 있음
 - 양액재배 시 고온이 되면 뿌리 기능 저하와 산소 결핍으로 양분의 흡수가 어려워져 결핍증상이 나타나므로 주의 필요
- (습도관리) 고온 다습상태가 되면 흰가루병, 노균병 등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시설 내 습도관리에 주의

3 시설 장미 하절기 병해 관리

- (병해 관리) 흰가루병, 노균병 등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시설 내 습도관리에 주의하고 예방 위주로 방제
 - 흰가루병은 질소비료 과용을 피하고, 등록된 약제를 계통을 달리 하여 삼수 채취 전부터 살포
 - 노균병은 이병된 잔가지와 잎은 모두 제거한 후 노균병 등록 약제를 2~3회 살포하고 환기를 통해 식물체의 물기를 빨리 제거

* 자료제공: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김 준 지도사(063-238-6452)

 맨 앞으로



제7장 특용작물

1

인삼

- (병해충방제) 병해충방제 시, 수확 예정 포장은 사용 농약의 적용 시기를 잘 확인하여 잔류농약이 검출되지 않도록 주의함
 - 탄저병, 점무늬병 발생이 우려되므로, 사용 농약의 적용 시기와 용량 등 안전 사용에 주의하여 생육 후기 병해 방제를 철저히 해줌
 - 가루깍지벌레는 4년생 이상의 고년근에 주로 발생하여 그을음병을 유발하고 지상부를 말라 죽게 하므로 발생 초기 감염된 지상부를 제거하고 주위에 등록 약제를 살포해 줌
- (예정지 관리) 고온기(7~9월)에 깊이 자주 갈아 주면, 토양의 물리성 개량 및 병원균이나 해충 등을 뜨거운 햇빛에 노출함으로써 토양 소독 효과를 볼 수 있음
 - 갈아줄 때 한번 갈았던 방향과 직각 또는 약간 엇갈린 방향으로 충분히 고루 깊이 갈리게 함
 - 점토질이 많은 예정지는 사질토보다 경운 횟수를 늘려줌
- (집중호우 대책) 인삼은 집중호우로 인한 생리장애와 탄저병, 점무늬병 등 병해충 발생이 증가할 우려가 크므로 이에 대비함
 - 유기물 함량을 2% 정도로 포장의 적습 범위 유지 및 통기성 개량
 - 해가림 시설의 늘어진 피복물을 팽팽하게 유지
 - 작토층 상면에 벚짚 등으로 피복

2

약용작물

- (종자, 종묘 준비) 가을에 심는 목단, 작약, 천궁 등의 약초는 종자나 종묘를 미리 준비하여 적기에 심도록 함
 - 젖은 모래에 1개월 정도 묻어둔 작약 종자를 9월 상순~중순에 파종하여 저온요구도를 충족해야 발아되어 종자번식이 원활해짐
- (순자르기) 황기, 우슬 등은 지나치게 생육이 왕성하면 도복 위험성이 따르기 때문에 쓰러짐 방지를 위해 생육상태를 관찰하여 8월 하순에 3차로 잘라주는 것이 중요함
- (웃거름) 당귀, 시호, 독활, 황기, 황금 등은 생육 상태를 관찰하여 8월 하순까지 웃거름을 주면 생육 상태가 좋아짐
- (배수로 정비) 지황은 강우가 계속되면 뿌리 발육과 산소공급이 저해되어 생육이 나빠지거나 뿌리썩음병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배수로 정비 등 사전 관리가 필요함
- (병해 관리) 점무늬병, 뿌리썩음병 발생 시 먼저 병든 식물체를 제거하고 이후 발생 초기에 등록 약제를 사용기준에 맞게 사용하는 등 잔류농약에 주의

3

느타리버섯

- (균 기르기) 한낮 고온에 의한 피해가 우려되므로 가능한 품종에 알맞은 온도가 유지되도록 정밀히 관리함
 - 관리 상태에 따라 배지 속 균이 잘 자라므로 항상 신선한 공기가 재배사에 유지될 수 있도록 환기와 습도 조절에 주의해야 함

* 자료제공: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김 준 지도사(063-238-6452)

( 맨 앞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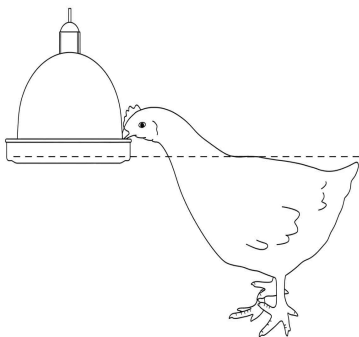


제8장 축 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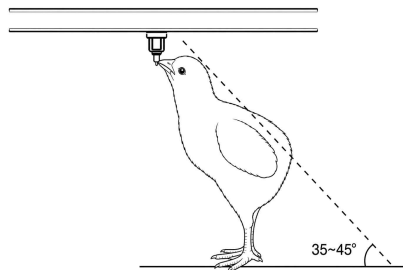
- (적정 사육 온도) 기온이 지나치게 높으면 조절 능력에 한계가 나타나, 사료 섭취량이 줄며 활동량 감소로 생산성이 저하. 심한 경우 폐사
- (한우 사료 처방) 짧게 썰어 양질조사료, 흑설탕 100g, 비타민 C 제제 급여 등
- (전기화재 예방) 누전, 합선, 용량 초과로 인한 축사 화재 피해 예방 철저

1 가축 적정 사육 온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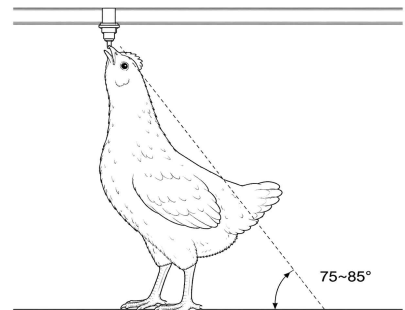
- (가축) 외부 환경변화에 따라 체내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생리적 작용이 나타남
 - 기온이 상승하면, 일정한 체온을 유지하기 위한 조절작용으로 피부 혈관 확장, 빠른 호흡, 땀 분비 촉진 등의 반응이 나타남
 - 기온이 지나치게 높으면 조절 능력에 한계가 나타나 사료 섭취량이 줄고 활동량 감소로 생산성이 저하되어 심한 경우 폐사함
- (체온유지) 온도 범위 열중상태(Thermo Neutral Zone, TNZ)
 - 병아리는 알에서 깨어난 상태에서 온도가 고온일 경우 입을 벌리고 헐떡이며 호흡이 빨라지고, 목을 길게 빼고 늘어지며, 날개를 벌리는 행동을 하게 됨
 - 병아리는 체조직의 80%가 수분으로 그중 20% 잃으면 폐사하므로, 물은 24시간 언제든지 먹을 수 있어야 함



중형 급수기



니플 급수기



니플 급수기(성계)

- 닭은 고온에 민감한 동물로 성인 닭 기준 체온 40.6~41.7℃로 높은 편이고, 땀샘 없어 체온 조절에 어려우며, 27℃가 넘으면 스트레스를 받아 35℃ 이상 되면 폐사율이 급격히 증가함
 - 닭의 이상적 수온은 10~20℃로 감압 탱크와 파이프에 단열 처리하고 감압 탱크에 얼음을 넣어 수온을 맞춰 주어야 함
 - 물 1L당 비타민 C 0.1g과 사리칠산(아스피린) 0.3g을 첨가하여 소화기 계통의 질병을 예방함
- 소의 적정 사육 온도는 송아지 13~25℃, 육성우·번식우 4~20℃, 비육우 10~20℃로 27℃ 이상 고온이 되면 사료 섭취량이 7~12%로 감소하고, 유량도 20~30% 감소함
 - 고온 스트레스 지수가 75가 넘으면 육우의 생산량이 감소 하고, 98인 경우 폐사 한다고 되어 있어, 고온 스트레스 관리가 필요함
 - 고온 스트레스에 대처 방법으로 환기, 차광막, 분무 등이 있음
- 돼지는 땀샘이 거의 없고 지방층이 두꺼워 체열 방출에 한계가 있어 고온에 매우 취약하고, 성장 단계별 적정 사육 온도에 차이가 있어 돈사의 세밀한 온도관리가 필요함
 - 혹서기 돼지의 건강 유지를 위해서는 가장 무더운 낮 시간대를 기준으로 돈사 내부 온도를 28~30℃ 이하로 유지 하는 것이 좋음
 - 온도를 낮추기 위한 시설 설치로는 지붕 밖은 흰색 페인트를 칠하기, 지붕 밑 유리섬유와 같은 단열재 설치, 지붕 스프링쿨러 설치가 있음
 - 돼지 체감온도를 낮추기 위해 썬머창 설치, 돼지 목덜미에 시원한 물방울 떨어뜨리기 등 실시

< 돼지의 사육단계별 적정 온도의 예(축산원, 2025) >

(단위: kg)

구분	임신모돈	포유모돈	포유자돈 (~6kg)	초기자돈 (~15kg)	후기자돈 (~35kg)	육성돈 (~60kg)	비육돈 (~출하)
적정 온도(℃)	20~25	18~25	25~31	27~30	24~28	22~27	20~25

2

고온기 한우 사료 섭취량 감소 대응

- (사육 적온) 송아지 13~25℃, 육성우 및 번식우 4~20℃, 비육우 10~20℃로 송아지와 비육우의 고온 스트레스가 큰 편임
- 기온상승 시, 일정한 체온유지를 위한 조절작용으로 피부 혈관 확장, 빠른 호흡, 땀 분비 촉진 등의 반응이 나타남
 - 기온이 지나치게 높아지면 조절 능력에 한계가 나타남(사료 섭취량이 줄며 활동량 감소로 생산성이 저하)

< 고온 환경이 가축에 미치는 영향(축산원, 2025) >

구분	연구 결과
한우	- 외기온도가 5~20℃를 벗어나면 건물 섭취량에 영향을 줌 - 20℃ 이상 외기온도가 증가하면 사료섭취량 감소
	- 18℃에서 32℃로 변화되면 호흡수가 32→94회/분 증가 - 체온이 38.6℃ → 39.4℃로 증가
	- 사육환경(온도) 변화에 따른 체내 호르몬 변화 - 체온이 20℃ → 40℃로 증가: Cortisol 농도 3배까지 증가, Aldosterone 농도 40% 증가 - 고온 환경에서 Insulin 농도가 감소하는 경향이 있음
	- 25℃에서 30℃ 이상으로 증가하면 물 섭취량 증가

- (비육우) 30℃ 이상에서 발육이 정체되고, 25℃ 이상 되면 체온 상승으로 급격한 사료 섭취량 감소와 생산성 저하됨
- 비육우 사료 섭취량 저하 방지를 위해 비육 중기~후기에 고온 대책 절실 필요
 - 고온으로 인한 사료 섭취량 저하에 대비, 자가 제조는 기호성이 높은 당밀 첨가량을 높이고 각 영양소 함량을 상향 조정
 - 조섬유 함량이 높은 사료보다는 양질의 조사료를 공급하는 것이 좋음
 - 자동 사료 급이 시설은 고온과 동시에 습기가 많으면 사료 저장 사일로나 오거관 안에서 뭉치거나 부패하기 쉬워 수시로 점검

< 한우가 더위로 사료 섭취량이 줄어듦 때...>

- (농후사료) 새벽, 저녁, 밤. 조사료 저녁. 5cm로 짧게 썰어 양질조사료 급여
- (흑설탕) 흑설탕 100g을 사료급여 시 함께 급여하면 섭취량 증가
- (비타민 C) 반추가축용 코팅 비타민 C 제제 급여는 스트레스는 낮추고 섭취 늘림
- (신선한 사료 급여) 사료는 10일 이내 급여할 만큼 구입. 사료조는 자주 청소

3 축사 전기화재의 요인

- (정전 대비) 현대의 가축 사육에서는 급이, 음수, 환기와 같은 가축의 생존에 필요한 시설들이 전기에 의해 움직이며, 정전에 대비 정전 경보기 같은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좋음
- (더위 대비) 혹서기에는 물 또한 사전에 충분한 양을 확보하고, 음수 시설을 사전점검 및 동력 없이도 급수가 가능하도록 준비함

<용량 초과>

- 용량을 어기고 문어발식 배선 사용 시 과전류로 인한 화재 발생
- 전기기구, 전기모터는 한 콘센트에 한 개 기구만 사용
- 비닐 전선은 용량 초과 시 위험하므로 반드시 규격 전선 사용

<누전>

- 동물은 감전에 더욱 민감하므로 세심한 주의 필요
- 축사 내 전기 사용시설은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여 주기적 점검·확인
- 누전차단기는 누전 발생 시 자동 차단으로 안전하게 사용

<합선>

- 전선이 낡거나, 전선 피복 손상 및 과전류로 인해 열 발생
- 전기기계·기구 동시 사용 금지
- 노후 배선의 전선 피복이 벗겨져 발생
- 과전류 발생 시 전기 차단 정격용량의 퓨즈나 차단기를 설치하여 사용

<전기 고장 시 대책>

- 누전차단기는 반드시 월 1회 점검을 해야 함
- 분전반 내부 및 노출 전선, 전기기계 기구를 청결히 유지함
- 금속제 외함에는 반드시 접지공사를 함(예: 배 · 분전반, 전기기계, 기구를 청결히 유지 할 것)
- 파손된 플러그와 콘센트 기타 노후화된 전기 시설 등 교체
- 노후 된 개폐기 · 차단기는 즉시 교체할 것

< 단열재별 권장 두께(축산원, 2025)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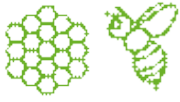
(단위: mm)

구분	우레탄 폼		샌드위치 판넬	
	지붕	측벽	지붕	측벽
남부지방	75~100	50	75	50
중부지방	100	50~75	100	50~75

※ 단열재는 불연재 사용

* 자료제공: 국립축산과학원 이소영 지도관(063-238-7205)
김진필 지도사(063-238-7206)

( 맨 앞으로)



제9장 양 봉

1

가을철 기본 관리

- (도둑벌 방지) 꿀이 가득 찬 벌집을 벌통 양측 가장자리에 넣어주어 충분한 먹이 공급과 전체 벌무리 군세화를 꾀하고, 벌통 검사 시 기본사항 준수 등 필요

【군세화】

- 전체 양봉장 벌무리 세력을 비슷하게 유지하도록 강군에서 약군에 발육 벌집을 보충해 주는 것으로 일벌을 털어내고 번데기 발육 벌집만을 보충, 또는 여러 벌통에서 벌이 붙어 있는 벌집 1~2장씩 빼내어 빈 벌통에 모은 후 저녁 무렵에 각각의 보충군에 분배하여 넣어주며, 보충 후에 설탕물을 벌집 사이에 지그재그로 흘려주어 친밀감 유도

- (합봉) 10월까지 월동 벌로 정상적 발육이 불가능한 벌무리의 경우 8월 초부터 합봉 처리하여 월동 가능한 벌무리로 육성이 필요

【합봉】

- 군세화를 위하여 강군에서 약군에 벌을 보충, 여왕벌이 없어진 벌무리의 벌을 다른 벌무리에 보충, 월동으로 증식이 어려운 벌무리 등 조정이 필요한 벌통 간에 합봉을 진행함
- ① 합봉시킬 벌무리의 발육 벌집 2장을 일벌이 붙어 있는 채로 빼내어 보충받는 벌무리의 격리판 바깥쪽 빈공 간에 위치
- ② 벌집 바깥쪽에 사양기(먹이통)를 설치하고 설탕물을 공급
- ③ 보충받는 벌무리의 사양기에도 설탕물을 공급하나 공간이 부족한 경우 1개의 사양기를 공동 이용
- ④ 각 사양기 안쪽 첫 번째 벌집 상단에 약간의 설탕물을 벌집 사이로 스며들게 하여 벌들 간 친밀감을 형성
- ⑤ 다음날 혹은 2일 후에 보충 벌집을 본 벌무리의 사양기 바깥쪽으로 이동, 다시 1일 후 점차적으로 사양기 안쪽으로 이동하여 최종 합봉

- (일벌 양성) 9월 중하순의 월동벌을 양성할 월동 자격군을 양성하는 시기로 설탕물과 화분을 집중적으로 공급함
- 설탕물 공급은 먹이원이 결핍되는 무밀기가 최고점에 달하는 시기로 벌무리의 군세에 따라 매주 2~3회, 1회에 1L 내외 공급
- 화분공급은 육아에 화분이 필요하고, 번식을 촉진하기 위하여 화분떡 공급이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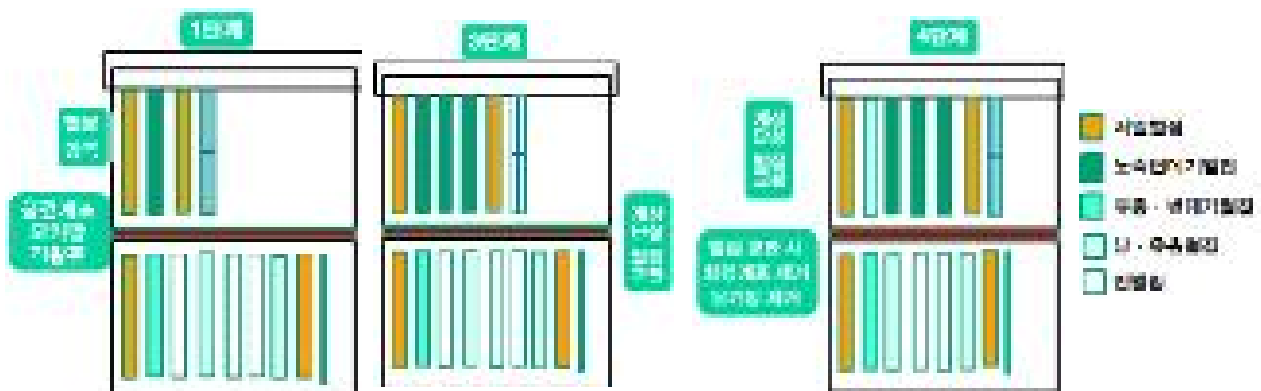
2

가을왕 육성

- (산란 확인/구왕 교체) 교미군을 편성하고 2~3주 후 교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산란을 확인
 - 산란이 확인된 신왕은 구왕과 교체하고, 구왕 교체 시에는 교미상에서 산란을 시작한 지 8일 이상 된 여왕벌 이용
 - 구여왕벌의 교체는 철망유입법을 이용하는 방법이 양호하며, 중요한 왕의 경우에는 어린 벌 이용 유입이 가장 안전

【어린 일벌 이용 유입】 이 방법은 4단계의 과정을 거침

- ① 구왕 벌무리의 홀통 위에 덧통 편성, 덧통의 벌통 입구의 방향은 홀통과 반대로 향하게 함, 홀통과 덧통 사이에는 철망 덮개(격왕판+모기망)와 헝겊 덮개를 놓아 완전히 격리, 덧통 벌무리 준비 시 벌집의 질이 매우 중요하며 출방 직전의 번데기 벌집, 화분 벌집, 저밀 벌집 등 총 3장의 벌집을 홀통에서 털어낸 어린 벌과 같이 준비
- ② 유입 벌무리 형성 1~2일 후 벌통 검사를 하여 왕대와 늙은 벌이 있는가를 검사, 왕대 확인되면 제거, 신왕을 철망 유입법으로 유입, 1~2일 후 여왕벌을 일벌들이 공격하지 않으면 철망을 제거
- ③ 신왕 유입 2~3일 후 벌통 검사 시 여왕벌이 정상적으로 산란을 시작하면 유입군의 산란 벌집 및 유충 벌집은 빼내고 홀통에서 빼낸 빈 벌집과 교체, 일벌 출방 벌집을 보충해 줄 때 늙은 벌은 털어내고 어린 벌만 붙인 채로 보충
- ④ 유입 여왕벌이 산란한 지 10일 만에 홀통과 덧통 사이의 헝겊 덮개는 빼내고 철망 덮개만 남겨 놓아 서로 간에 공기만 통하게 하며, 이후 계속해서 벌집 교체 작업을 하여 5일 후에는 홀통과 덧통의 벌집수가 비슷하게 유지되면 홀통의 구왕을 없애고 철망 덮개 제거



3

해충 관리

- (응애류) 꿀벌응애 및 중국가시응애의 발생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약제 방제를 비롯한 종합적 방제 실시, 특히 중국가시응애는 눈에 잘 보이지 않아 면밀히 관찰하는 것이 중요
- (말벌) 양봉장으로 말벌이 본격적으로 출현하는 시기로 유인 트랩 이용하거나 직접 포충망을 이용하여 방제하는 것이 필요
 - 장수말벌은 처음 피해는 양봉장 주변부의 약군에서 발생하여 30분 이내에 벌무리가 망가지고, 방치 시 다른 벌통으로 옮겨 많은 벌무리가 폐사 직접적인 피해가 적어도 월동벌 양성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므로 끈끈이 트랩을 벌통 위 또는 주변부에 설치하거나 벌통 출입구에 장애물을 설치하여 방제함
 - 등검은말벌은 이른 아침~저녁 늦게까지 계속해서 날아와 일벌을 채가므로 방치하는 경우 장기적으로 월동벌 양성에 극심한 피해가 발생하고, 장수말벌과는 달리 유인트랩과 끈끈이 트랩의 효과가 작음
- (나방) 벌무리 세력이 매우 약하거나 방치된 벌통 내 벌집이 있는 경우 꿀벌부채명나방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며, 꿀벌부채명나방 유충이 벌집을 돌아다니면서 유충 및 벌집에 직접적인 피해주므로 벌무리 세력에 따라 화분떡 급이량을 적절하게 조절하고, 벌통 검사 시 꿀벌부채명나방 유충(소충)의 유무를 확인
- (거미) 양봉장 주변을 수시로 점검하여 거미줄을 제거, 아침저녁으로는 거미를 쉽게 찾을 수 있으나, 낮에는 은닉하는 경우가 많아 찾아서 없애야 효과가 있음

* 자료제공: 국립농업과학원 이수진 연구사(063-238-2846)

 맨 앞으로)



발 행 농촌진흥청 기술보급과

작성자 농촌진흥청 재해대응과 이우일

국립농업과학원 심교문, 이수진

국립식량과학원 조아라, 전수연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김 준, 이승규

장상현

국립축산과학원 이소영, 김진필

편집인 농촌진흥청 기술보급과 윤성환, 배선아

전 화 063-238-0981, 0992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농생명로 300